

박휘락 교수에게 듣는 한국 근대 디자인교육

조혜영
홍익대학교 강사

요약

한국디자인을 다시 읽어보자는 아카이브 특집 기획으로 '근대 디자인교육'을 조명한다. 이 기획의 의도에 맞는 교육자로 디자인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박휘락 명예교수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1998년 예경에서 출간한 그의 저서 『한국 미술교육사: 미술교육 100년의 흐름(1895-1995)』이 있다. 이 책은 한국 근대 디자인교육에 관한 내용을 수집, 발굴하여 한국 미술교육의 역사와 함께 서술하고 있다. 그의 저서에 등장하는 디자인교육 관련 내용은 그동안 디자인계의 학자나 교육자가 다루지 못한 현대 산업사회 이전의 디자인 역사와 그 흔적을 기록한 2차 사료로서 의미가 크다. 한국 디자인사 연구자들에게 디자인계 바깥에 있는 학술 자료와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자 그를 찾아가 근대 미술 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었다. 사전 전화 인터뷰와 심층면접을 통해 근대 한국의 미술교과서 『도화임본(圖畵臨本)』에 관한 이야기와 근대기 미술교과에서 다룬 디자인교육의 변천에 관해 상세히 들을 수 있었다. 이 글은 미술교육자 박휘락이 미술교육사의 맥락 속에서 디자인교육 관련 사료를 발굴,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의 관점에 관한 기록이다.

1. 대구 사범학교 출신 미술교육자, 박휘락
2. 『한국 미술교육사: 미술교육 100년의 흐름(1895-1995)』
3. 근대적 초등 미술교과서 도화임본 속의 디자인교육
박휘락과의 Q&A
4. 박휘락의 저술을 통해서 조명해 보는 근대 디자인교육

His Story of Park Hwirak and Design Education in Modern Period

Cho Haeyoung
Lecturer
Hongik University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tried to shed light on modern design education with the idea of reexamining Korean design history. As an educator in line with this idea, professor emeritus Park Hwirak was selected, even though he is not a household name in the design community. In the background, there is his book *The History of Art Education in Korea: 100 Years of Art Education (1895–1995)*, which was published by Yekyong Publishing in 1998. This book is based on the collection and exploration of materials related to modern design education, and deals with the history of Korean art education. The design education in his book is meaningful as a secondary source, as it records the history and early traces of design before modern industrial society that design scholars and educators have not covered. In order to introduce academic materials and research methods outside the design world to researchers in the Korean design history, I visited prof. Park and heard about the background of his research on modern art education and listened to related stories. To this end, I conducted telephone interviews and in-depth interviews to hear about the modern Korean art textbook called *Dohwaimbon* and the changes in design education during the modern period. Therefore, this article provides the possibility of diversified interpretations of Korean modernity and an in-depth story about the design environment before the industrial developing era of 1960s in Korea.

Abstract

1. 대구 사범학교 출신 미술교육자, 박휘락

박휘락 대구 교육대학 명예교수(이하 직함 생략)는 1935년 2월 25일 경상북도 영덕에서 출생한 후 보통학교 4학년까지 일제 강점기 속에서 근대교육을 받았다. 일제 강점기에 그는 일본어로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어 외에 한자를 포함한 일본어를 습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1945년 해방 후 전쟁 속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1955년 대구 사범학교¹⁾를 졸업했다. 해방 후 한국 전쟁 전까지 중고등 학생들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입시를 준비하고, 사회적 발언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시기 우리 사회는 좌우대립뿐만 아니라 지역과 계층 간 갈등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대였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입시 제도를 통해서 사회로 진출하고 대학에 진학했다. 그는 당시 여러 가지 개인적 상황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사범학교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격동기 청년 세대 역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어려운 문제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역시 생애사 측면에서 인간이 겪는 보편적 문제라고 공감할 수 있었다.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할 당시 박휘락은 포항 중앙국민학교²⁾로 교사 발령을 받았다. 당시 전문 교사가 없던 예체는 교과 중 하나를 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미술교과를 담당하게 되면서 미술교육자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교육자로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술교육이라는 소명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당시 포항 중앙국민학교는 미술교육 중점학교로 미술교과를 위한 교실이 따로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초등미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한다. 종이와 귀하던 시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료 역시 귀했기에 그는 1교시 전에 3분 크로키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아이들의 정서적 성장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술교육을 실행했다. 또한, 미술교과 수업교재 개발과 학생 교육에서의 성과를 인정받게 되면서 판화 수업을 통해 초등학생의 미술교육 활성화에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렇게 그는 교육자로서 본인도 회화와 판화 부문 공모전에 입상하는 등 작가 활동을 겸하면서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게 된다.

그는 서울이 아니라 대구에 거주하는, 미술대학 졸업자가 아닌 사범학교 출신의

- 1) 대구사범학교(大邱師範學校): 경상북도는 1922년 3월에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사범학교 규정에 의거하여 1923년 4월 1일 경상북도 공립사범학교를 대구에 설치하였다. 사범학교는 초등학교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기관이다. 근대기 근대적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교사 양성은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교사양성을 위한 전문학교가 설립되어 해방 전에는 서울, 평양, 대구에 관립사범학교가 운영되었다. 대구사범학교가 그 중 하나로 해방 후에는 인구증가와 교육의 확장으로 전국적으로 교육대학이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의 대학으로 통합되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07대구사범학교\(大邱師範學校\)&ridx=0&ot=2\(2021.5.1\)](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07대구사범학교(大邱師範學校)&ridx=0&ot=2(2021.5.1))
- 2) 국민학교(國民學校): 일본에서 1941년의 국민학교령에 의해 성립한 소학교를 대신하는 초등교육기관이다. 전쟁시기에 국민동원을 지지하는 장치로서 국가주의와 밀접한 연계를 가지면서 교과와 통합화와 저학년의 이수과(理數科)의 도입 등 1910년대 이후의 신교육 운동이 제도화되는 교육정책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일본강점기에 1941년 일본왕의 칙령으로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의미인 '국민학교'라는 용어를, 1945년 8·15광복 이후에도 계속 사용해 오다가, 1996년 민족정기회복차원에서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했다. - 네이버 지식백과, 21세기 정치학대사전 내용 요약.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2140&docId=726343&categoryId=42140> (2021.5.1)

미술교육자였기에 교육 현장 속에서 미술교육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미술 교과서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고 미술 교과 전반에 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논문이 축적되었고, 그것을 책으로 내게 된 것이 『한국 미술교육사: 미술교육 100년의 흐름(1895-1995)』(이하 부제 생략)이다. 대구 교육대학 부임 후 교육학 분야에서 미술교육이 전문화되는 과정과 역사를 직접 겪었다는 점에서 박휘락의 생애는 미술교육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볼 수 있다. 그에게 미술은 창작을 전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수행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는 미술을 실기와 이론 모두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의 논문들은 미술사, 미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이론과 창작 수행에 관한 연구를 모두 포함한다. 디자인 분야의 전문 이론을 다루는 교육자가 아님에도, 그가 근대 미술교육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미술교과에 서술한 것은 그의 관점이 담긴 연구가 우리의 근대적 디자인 개념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전제를 가능하게 했고, 이것이 그를 디자인 교육자로 바라보게 한 이유이다.

2. 『한국 미술교육사: 미술교육 100년의 흐름(1895-1995)』

그는 이 책을 다수의 논문을 엮어서 낸 것이라고 했는데, 목차를 살펴보면 미술교과서와 미술지도를 위한 교육 자료를 분야별로 시대순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박휘락은 『한국 미술교육사』에서 크게 3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미술교육의 변천과정을 다루었고, 2부에서는 ‘회화’, ‘사생화’, ‘판화’, ‘수공’, ‘디자인’, ‘감상’ 등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교육에 필요한 미술 영역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3부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변천과 특성을 역사적으로 살피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논의했다. 여기에서 그는 1895년 우리나라에 근대식 학교와 교육제도가 도입되었던 대한제국 시기의 미술교과서, 『도화임본(圖畵臨本)』(1906)을 근대식 미술교육의 시작점으로 보고 100년사를 기록하게 된다.

그의 사관은 근대 미술교육의 전개 과정에서 맞닥뜨린 식민지 상황 때문에 선진 교육이론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미술교육에 대한 자생적인 역량을 기를 수 없었다고 보는 수탈론 혹은 내재적 발전론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한국의 근대 역사관에서 민중사학, 민족 사학적 관점에서 미술교육을 서술하되, 초중고 미술교육 과정의 변천, 교과목의 분류, 통합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 그 중 특히 초등교과를 중점으로 다루며 근대 미술, 공예, 디자인 분야가 국민교육과 시민교육을 위한 기초교육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증언한다. 다시 말해, 전문 디자이너 육성이라는 측면이 아닌, 국민교육을 목표로 하는 성장발달 교과로서 미술교육 속 디자인을 발견하게 된다.

3. 근대적 초등 미술교과서 도화임본 속의 디자인교육

새로운 미술교과 도입은 근대적 미술교육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는 계층에 따라 직업이 분화되었기 때문에 보편적 미술교육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사대부 같은 엘리트 집단이 교양을 쌓는 방법으로 시서화가 존재했다. 이런 환경에서 직업인으로서의 화가 양성을 국가기관인 도화서에서 근대적 시민교육과는 다른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고, 전통적 미술교육은 갑오개혁 이듬해인 1895년 소학교령³⁾에 따라 '도화과'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전환기를 맞게 된다. 박휘락은 그의 논문⁴⁾에서 근대적 디자인교육의 실행을 우리의 전통적 조형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대중교육에 걸맞은 초등교과에 배치했다는 점을 들어 『도화임본』의 중요성을 논했다. 박휘락은 근대적 디자인교육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미술교과서 『도화임본』⁵⁾과 『도화과지도세목(圖書指導細目)』⁶⁾(1938)을 들어 주장했다.

박휘락은 미술을 학문적 영역에서 실기와 이론으로 함께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던 중 『도화임본』을 발굴하고 연구하게 되었다. 그에 따르면, 근대기 미술교육은 정서함양과 기술습득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는데, 표현 측면에서 회화를 고안화와 용기화로 구분했다. 여기에서 고안화는 디자인교과라고 볼 수 있다. 즉, '구성', '도안', '편화' 그리는 법 등 오늘날 '디자인'과 같은 교육이었다. 물론, 하나의 사건을 근거로 근대기 전반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거꾸로 한 시대를 다양한 담론으로 파악하는 것 또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다. 『도화과지도세목』에서는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응용으로서 조형적 응용을 지도하려고 했던 점에서 디자인을 둘러싼 근대적 사고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그와의 인터뷰 내용을 구술체록한 것이다.

- 3) 1895년 7월 19일에 발표된 소학교령을 살펴보면, "아동신체의 발달함에 비추어 국민교육의 기초와 그 생활에 필요한 보충지식과 기능을 배우는 것"(소학교령 1895.7.19)이라고 했던 것을 보아, 어린이와 초등교육에 대한 개념과 국민교육, 즉 시민으로서의 기초교육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 4) 박휘락, (1985) 「한국 디자인 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대구교대논문집』, 21집, 대구교육대학교; (1989), 「도화임본」 『대구교대논문집』, 25집, 대구교육대학교
- 5) 『도화임본(圖書臨本)』은 대한제국 시기인 1906년 보통학교령 시행에 따라 편찬, 발행된 한국 최초의 미술교육용 국정교과서로 1907-1908년에 총 4권으로 발간되었다. 국가등록문화재 733호
- 6) 『도화과지도세목(圖書指導細目)』은 1938년 대구사범학교 부속소학교의 교사였던 최유련에 의해서 집필된 것으로 이에 대한 교육지침서인 『도공교육(圖工教育)』과 함께 발견되어 일제강점기 바우하우스 교육이 한국에 도입되었음을 박휘락의 저서 『한국 미술교육사』에서 서술하고 있다.

박휘락과의 Q&A

Q. 어떻게 『도화임본』을 알게 되었나요?

A. 미술교사로 일하면서 미술교육에 관한 자료나 책이 부족하다고 느끼다가 교육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어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모으고 논문을 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도법이라든가 교수법에 관한 논문들을 썼는데, 도화교과서에 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대한제국 시기의 자료를 찾다가 도서관에서 대한제국이 발행했던 관보 광고란으로부터 『도화임본』이 새로 나온 교과서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실제로 그 책의 원본을 찾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도화임본』을 어떻게 찾았나요?

A. 일제 강점기 이전 1896년 광무개혁 때 근대적 학교가 시작되면서 근대 교육에 맞는 교과서가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과서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부산시립도서관과 서울국립중앙도서관 두 군데에서만 『도화임본』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가까운 부산에 갔더니 책을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가는 길에 들렀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주최한 덕수궁미술관 전시에서 우연히 『도화임본』 원본을 보게 되었어요. 전시장에서 직접 볼 수 있냐고 물었더니, 전시가 끝나고 볼 수 있다고 해서, 경기도에 있던 정신문화연구원에 직접 찾아가서 1권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뻐요. 애타게 찾던 자료를 찾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우연히 서울 남산에 있던 국립중앙도서관에 갔더니 4권 전권이 다 있었어요. 보통학교 미술교과서였던 『도화임본』은 4년 과정에 따라서 총 4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서관 복사실에서 4권 전권을 모두 복사해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Q. 『도화임본』에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을까요?

A. 『도화임본』이 처음 나온 해는 1907년에서 1908년이에요. 1910년이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던 해였는데, 그 전 교과서에는 태극기와 대한제국의 황실의 문양이 등장하다가 1910년 이후에는 태극기가 일장기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 기본적인 그림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런 배경은 『도화임본』을 만들 때 우리나라의 책임자가 일본의 교과서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근대적 미술교과서를 발간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세기 중반 메이지 유신을 통해 먼저 근대로 제도와 틀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문을 구한 것이었죠. 그러다가 해방 후 미술 교과서는 다시 혼란기를 거치면서 1차 교육과정(1955-1963) 개편을 거쳐 서구 미술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의 피바디 교육사절단이 방문하게 되고 창의성 중심 교육이 도입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유럽의 미술교육이 도입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미술교육이 변화해온 거예요.

4. 박휘락의 저술을 통해서 조명해 보는 근대 디자인교육

박휘락의 저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근대 미술교육의 시작점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지점에 근대적 의미의 디자인교육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의 단절, 민주주의 도입 등 국제 정세와 정치사적 맥락에서 거시적 측면에서만 파악하려 했던 우리 디자인의 시작을 우리가 주도해서 관련한 교과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사료를 통해 가능하게 한다. 근대적 미술교육과 그에 따른 교과개발은 어쩌면 근대인의 탄생을 일컫는 말일 수 있지 않을까? 인쇄된 근대적 의미의 미술교재의 등장은 미약하지만, 본격적인 근대적 계몽과 개화의 시발점이자, 외래 문화를 우리의 상황에 맞게 번역한 상징적인 근대적 변화일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소학교와 고등학교에 선택과목으로 도입된 도화(圖畵) 교과서는 당시 미술교육이 보편적 교양교육 목적보다는 기능적 목적, 다시 말해, 삶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실에 기초한 직업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속에서도 이런 목적으로 미술 교과에 도입한 도화 교육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디자인'의 근본 개념과 취지에 정확히 맞닿는다.

박휘락과의 대화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근대기 한국인은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문학과 예술분야 전반에서 번안을 해야 했다. 부르던 노래의 음계를 서양식으로 바꾸고, 곰방대에 피우던 담배를 종이상자에 담긴 권련으로 바꾸는 식으로 원래 하던 많은 것들을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변용해야 했다.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우리뿐만 아니라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의 문화 수용과 확산을 계기로 겪어야 했던 사건일 것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삶의 개선을 위한 근대 교육의 교과로 등장했던 미술교육이 도화로 이어진 것을 보면서 디자인교육의 시작점으로서의 단서를 발견하면서, 근대기 우리 디자인을 조명해볼 수 있게 되었다. ㉞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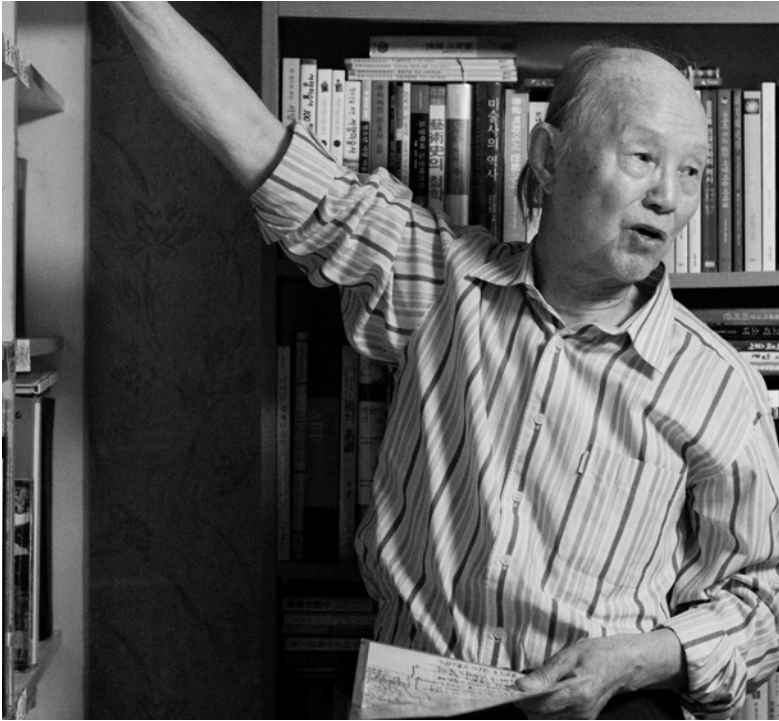
- 박휘락, (1985), 「한국 디자인 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대구교대논문집』, 21집, 대구교육대학교
- 박휘락, (1989), 「도화임본」, 『대구교대논문집』, 25집, 대구교육대학교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07대구사범학교\(大邱師範學校\)&ridx=0&tot=2](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07대구사범학교(大邱師範學校)&ridx=0&tot=2) (2021.5.1)
- 네이버 지식백과, 21세기 정치학대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2140&docId=726343&categoryId=42140> (2021.5.1)

그림 차례

- [그림 1] 박휘락의 수기 연구 기록
- [그림 2] 서재에서 미술교육 관련 책을 소개하는 박휘락
- [그림 3] 그동안 박휘락이 수집해 온 한국의 미술교과서
- [그림 4] 아동미술지도를 위해 박휘락이 집필, 디자인한 미술교육서
- [그림 5] 포항 중앙국민학교에서 박휘락이 수업 1교시 전에 진행한 3분 크로키
- [그림 6] 미술교육과 관련한 박휘락의 프리젠테이션: 바우하우스 기초과정과 미술교육
- [그림 7] 미술교육과 관련한 박휘락의 프리젠테이션: 데이터 모음
- [그림 8] 일제 강점기 이전 대한제국이 발행한 근대식 미술교과서 『도화임본』 1권
- [그림 9] 일제 강점기 이후 정정(訂正) 발행한 개정판 『도화임본』 1권
- [그림 10] 『도화임본』에 실린 태극 문양
- [그림 11] 개정판 『도화임본』에 실린 일본 국기
- [그림 12] 『도화임본』 1-4권에서 자연, 사물 그리기의 내용
- [그림 13] 『도화임본』 1-4권에서 오늘날 디자인에 해당하는 도안 그리기의 내용



[그림 1] 박휘락의 수기 연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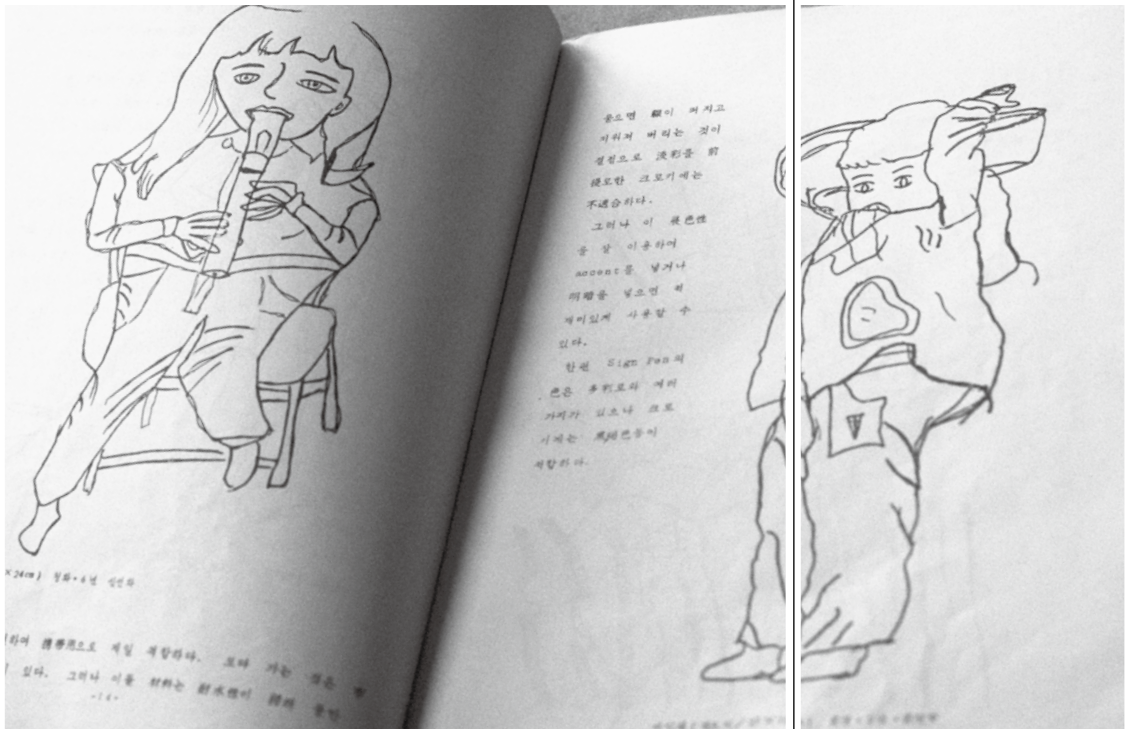
[그림 2] 서재에서 미술교육 관련 책을 소개하는 박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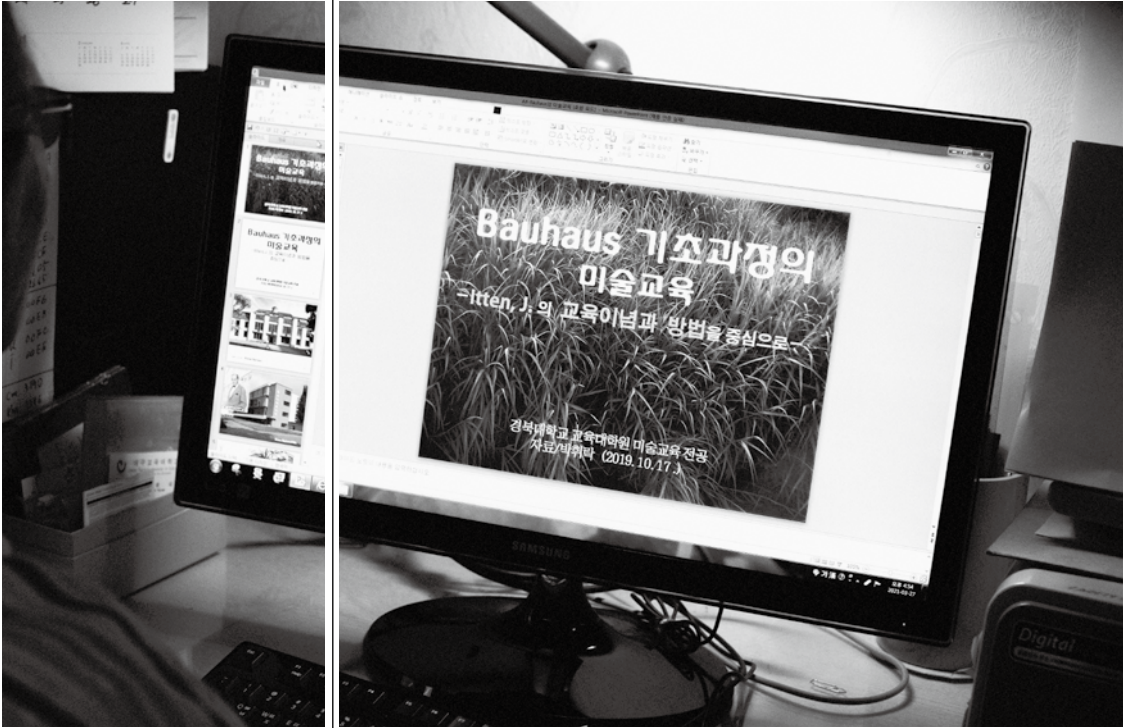
[그림 3] 그동안 박휘락이 수집해 온 한국의 미술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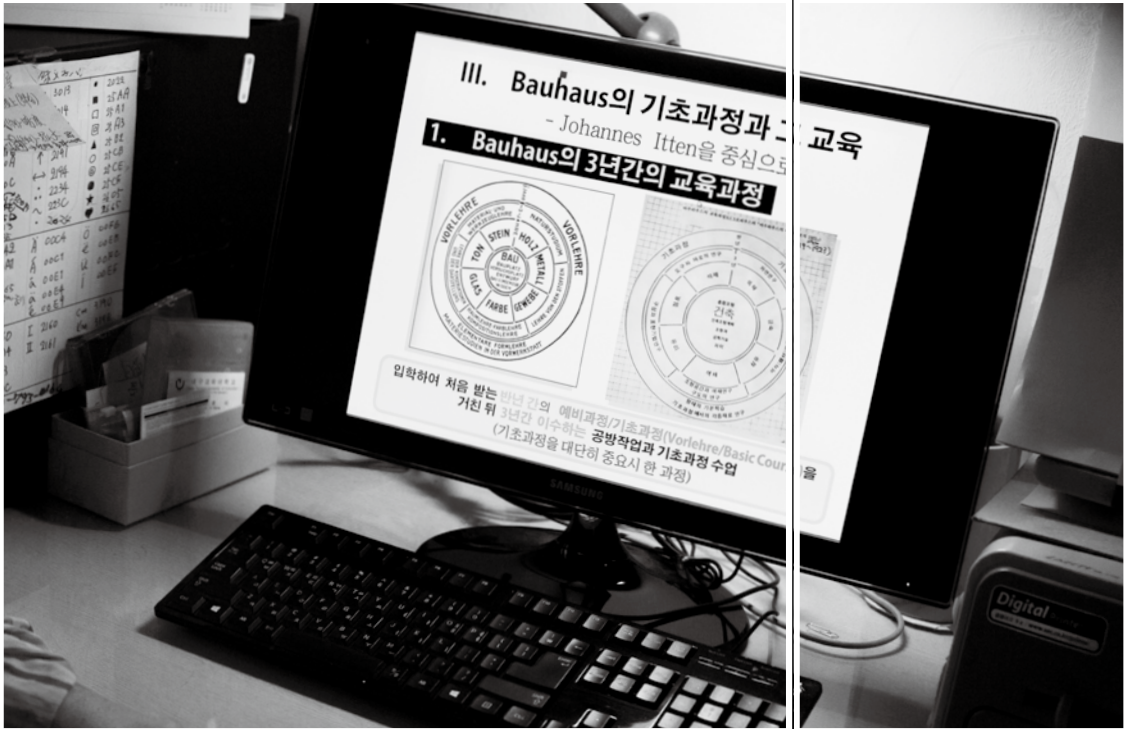
[그림 4] 아동미술지도를 위해 박휘락이 집필, 디자인한 미술교육서. 박휘락 소장



[그림 5] 포항 중앙국민학교에서 박휘락이 수업 1교시 전에 진행한 3분 크로키. 학생이 직접 크로키한 결과물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다. 박휘락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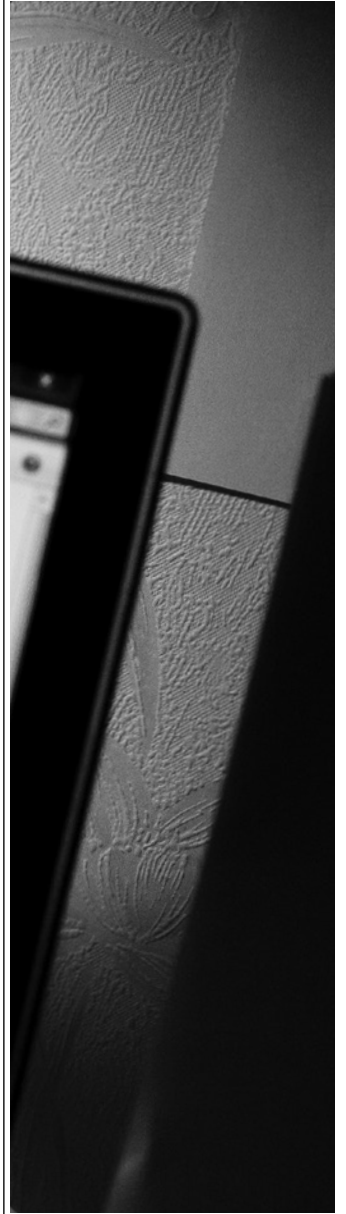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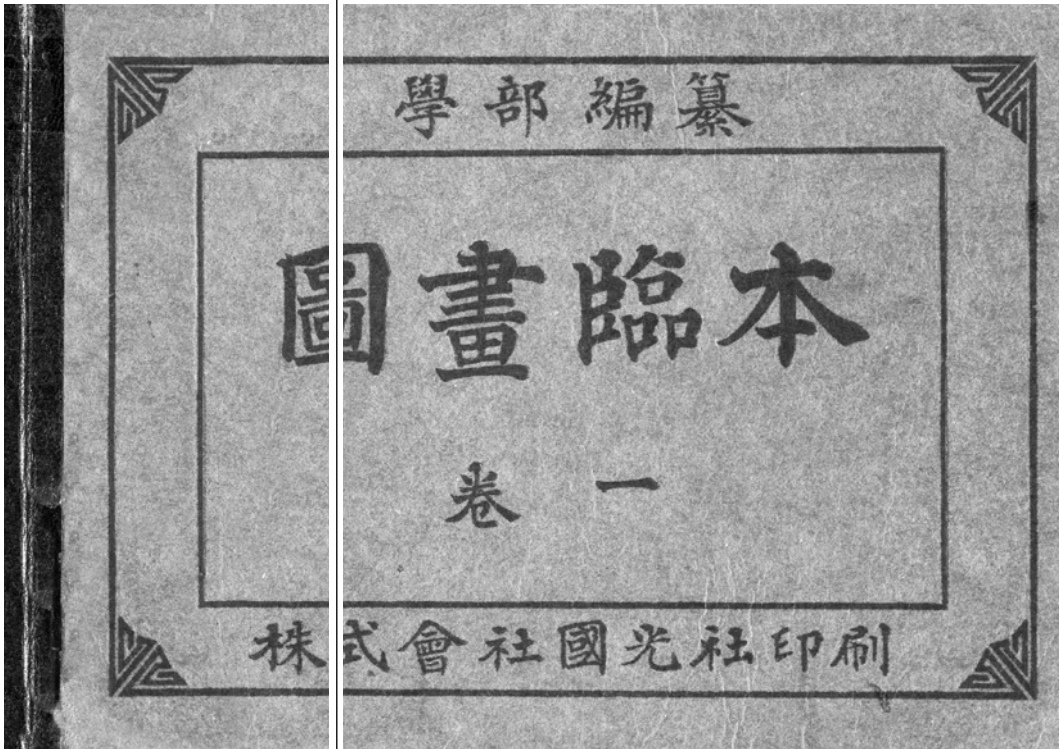
[그림 6] 미술교육과 관련한 박휘락의 프리젠테이션: 바우하우스 기초과정과 미술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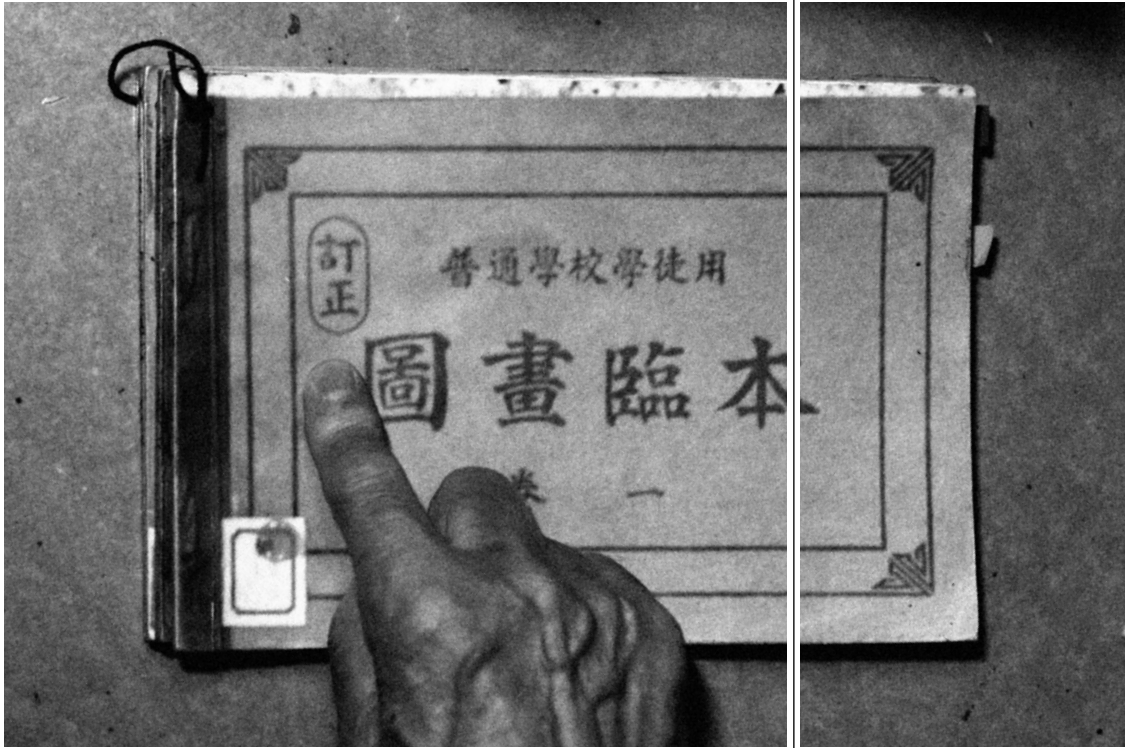


[그림 7] 미술교육과 관련한 박휘락의 프리젠테이션: 데이터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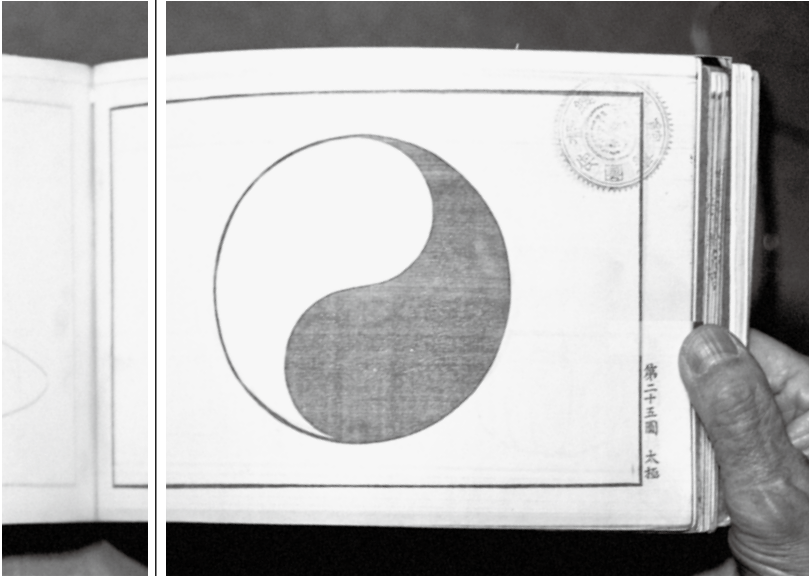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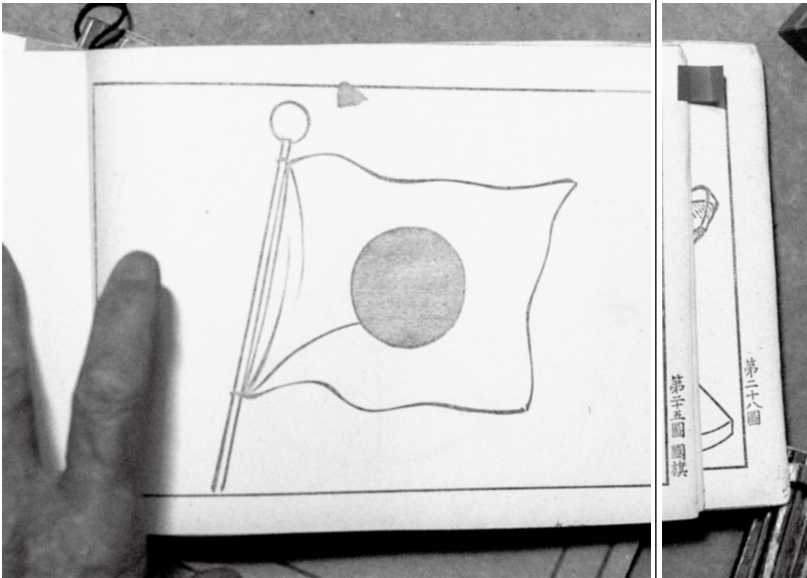
[그림 8] 일제 강점기 이전 대한제국이 발행한 근대식 미술교과서 『도화임본』 1권.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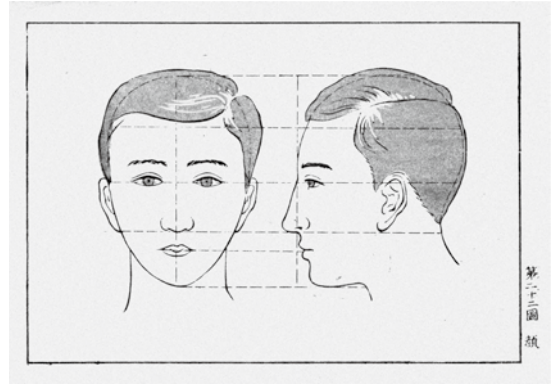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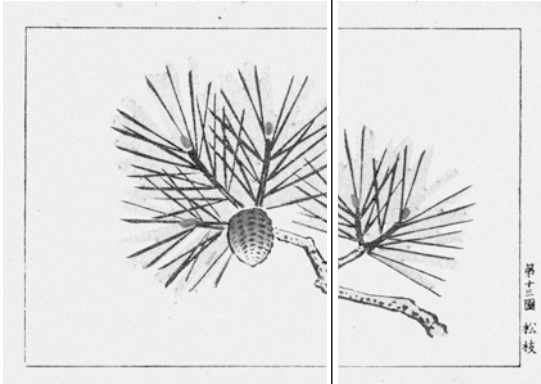
[그림 9] 일제 강점기 이후 정정(訂正) 발행한 개정판 『도화임본』 1권.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며 『도화임본』은 표지에 '정정(訂正)'이라는 표기를 넣어 재발행했다. 박휘락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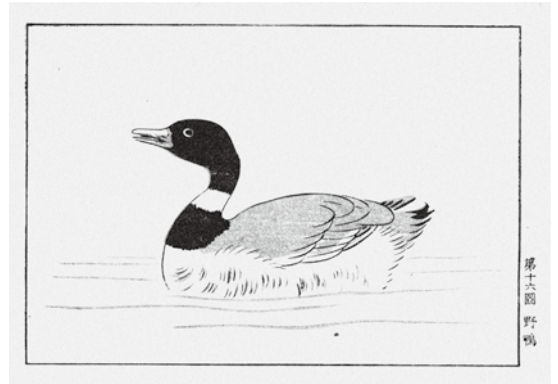
[그림 10] 『도화임본』에 실린 태극 문양. 박휘락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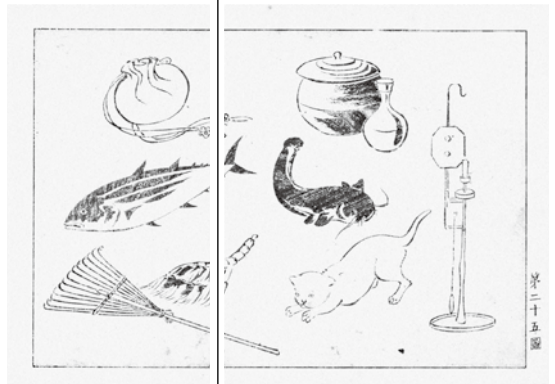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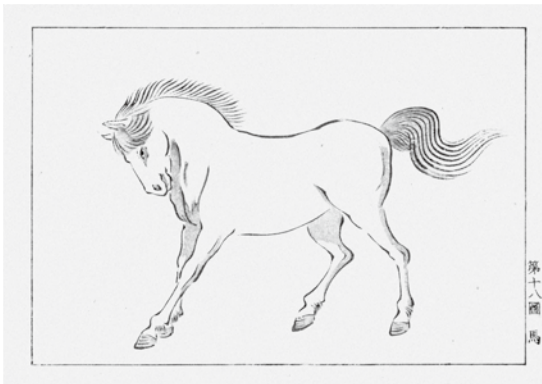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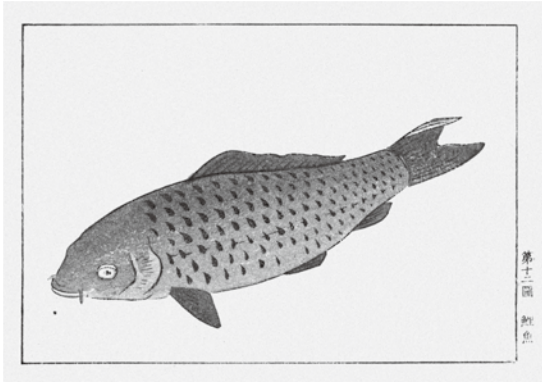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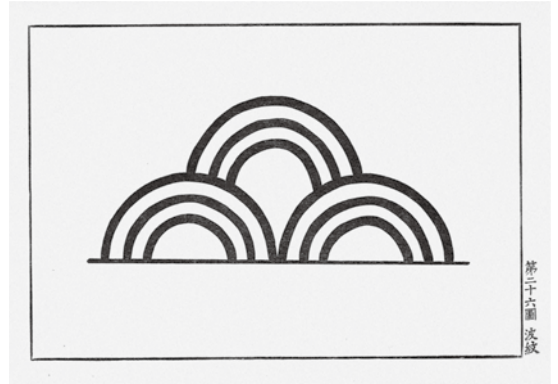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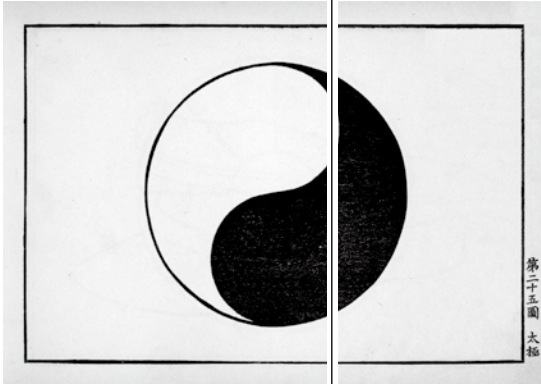
[그림 11] 개정판 『도화임본』에 실린 일본 국기. 개정판에서 태극 문양을 일본 국기로 바꿔서 재발행했다. 박휘락 소장



[그림 12] 『도화임본』 1-4권에서 자연, 사물 그리기의 내용. 『도화임본』은 보통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별로 난이도를 나눠 총 4권으로 발행했다. 그리기를 단계별로 학습하여 4학년 과정에서는 충분히 인물화나 모사화를 그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그림 13] 『도화임본』 1-4권에서 오늘날 디자인에 해당하는 도안 그리기의 내용.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